

관세 타결 막바지 협상 고위인사 잇따라 회동



▲ 지난 24일 워싱턴 DC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더그 버검 미국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과 한미 양국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대미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 DC에서 미국 정부 고위 인사들과 잇따라 회동하며 막바지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 장관이 24일 워싱턴 DC에서 더그 버검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장을 만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설비, 화력 광물 등 에너지 분야에서의 한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미국 측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규제 완화로 한국 기업이 참여할 기회가 확대됐으며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위해 알래스카 내 가스관 및 산업용 도로 건설 규제를 해제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으며, 우리 측은 한국의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여한구 본부장도 이날 오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비관세 조치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협상을 이어갔다. 여 본부장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 해소 노력을 설명하고, 한국이 다른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 측의 우호적 관세 조치를 거듭 요청했다.

전날 여 본부장은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와 화상 면담을 갖고 한국 기업의 안정적 대미 투자활동을 위해 주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실무협상 대표인 박정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도 24일 USTR 실무진과 세부 쟁점별 협상을 진행했다.

당초 25일 귀국 예정이던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협상 타결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체류를 연장, 25일 오후 뉴욕 러트닉 상무장관 사저에서 추가 협상을 계속했다.

폭우 끝나자 폭염, 온열환자 급증 사망 10명으로 늘어, 전국 98%에 폭염특보

폭우가 끝나자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한증막 같은 짙은 안개가 계속되면서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잠시 주춤했던 온열질환자도 다시 급증했고, 축산농가와 산업현장, 각 지자체는 더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북 포항에서는 지난 24일(한국시간) 네팔 국적의 40대 남성이 제초 작업 중 쓰러져 사망했다. 당시 폭염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오전 6시부터 작업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경기 광주시 한 물류센터에서 30대 여성이 열경련 증세를 보였고, 제주시 한립읍 공사 현장에서는 40대 중국인 근로자가 열경련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부산에서는 울어름 들어 72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17명)보다 3.2배 증가했다. 울산은 총 86명으로 2013년 이후 최다 인원이다. 경남은 191명의 환자가 발생해 1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배나 늘어난 수치다. 또 제주 37명, 인천 129명, 대구 76명, 경북 235명, 광주·전남 174



▲ 기승을 부리는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

명 등 전국적으로 환자가 급증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3일 기준 사망 추정자 10명을 포함해 1,979명에 달했다. 이날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80개 구역(98%)에 폭염특보가 발령됐다. 행정안전부는 폭염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건설 현장 등 야외 작업장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제를 운영하거나 그늘막을 설치해 더위와 싸우고 있다.

온열질환자가 급증하자 지자체들도 대응에 나섰다. 인천시는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고 9개 부서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경북도는 폭염대응 중점 추진 대책을 마련해 가동 중이며, 대구시는 지난 2일부터 폭염 비상단계를 2단계로 상향해 쪽방촌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풍기, 에어컨, 열 차단 페인트 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

출생아 11개월 연속 증가 올해 5월까지 10만명 넘어

결혼 증가와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 등이 맞물리며 출생아 수가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이 23일(한국시간) 발표한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2만309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41명(3.8%) 증가했다. 이는 2021년 5월(2만1,922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증가율은 2011년 5월(5.3%)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이며, 증가 폭 역시 2015년 5월(785명) 이후 10년 만에 최대다.

올해 1~5월 누계 출생아 수는 10만6,048명으로 집계돼 1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9% 증가한 수치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가

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 이후 매달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5월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1년 전보다 0.02명 올랐다. 이는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한국정부는 출생아 증가 배경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진 혼인 증가, 30대 초반 여성 인구 증가,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지원 정책 등을 꼽았다. 실제로 5월 혼인 건수는 2만1,761건으로 전년보다 840건(4.0%) 늘었으며, 이는 2019년 5월(2만3,045건) 이후 6년 만의 최고치다. 혼인 건수는 지난해 4월부터 14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발냄새로 미래를 본다

장원호 발 전문 병원

(발 및 발목 치료 족부 전문 병원)

Ryan Chang, DPM

레이저 Class IV Laser

최첨단 체외충격파

분야

- 발 통증, 통풍, 평발, 발목 골절
- 스포츠 관련 발 & 발목 부상, 인대 손상
- 관절염, 발가락 변형, 족저근막염
- 무좀, 내성발톱, 사마귀
- 발 교정용 & 맞춤형 깔창 처방
- 발목 또는 발가락 기형 수술
- 당뇨관련 발치료, 무지외반증
- 소아족부질환, 소아 안짱다리 교정

— 발 관련 스포츠 부상 관리 및 수술 전문 —

특별 진료

최첨단(체외충격파, 레이저)기기로 통증, 사마귀, 발톱무좀 치료

각종 보험 취급

PPO: United Health Care, Anthem, Cigna, Aetna, Blue Cross Blue Shield
HMO: Seoul Medical Group, Center IPA, Prospect (Daehan) Medical Group

T.949.484.4405

62 Corporate Park Suite #235, Irvine, CA 92606

월요일 - 금요일 9:00am - 5:00pm